

KIA, 선발 전원 안타 ... 어린이날 '승리' 선물

롯데 스트레일리 집중 공략해 1회 5득점 빅이닝 8-5 승리 맹덴 6.2이닝 3실점 호투 시즌 2승 ... 정해영 4세이브 성공



KIA 타이거즈가 '잇몸아 구'로 승리를 가져왔다. KIA가 5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이언츠와의 시즌 4차전에서 선발 전원 안타로 8-5 승리를 거뒀다.

나지완, 류지혁, 이창진에 이어 최형우까지 막막 이상으로 이날 엔트리에서 탈락되면서 KIA는 최원준(우익수)-김선빈(2루수)-터커(좌익수)-이정훈(포수)-유민상(1루수)-김태진(3루수)-박찬호(유격수)-한승택(포수)-김호령(중견수)으로 라인업을 꾸렸다.

올 시즌 1루수로 변신한 터커가 시즌 첫 외야수로 출전하는 등 KIA는 줄바상으로 인한 '위기 탈출'을 위해 고심했다.

그리고 KIA는 1회 모처럼 집중력을 발휘해 대거 5점을 뽐으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선발 맹덴은 아쉬운 7회는 보냈지만 6.2이닝 3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시즌 2승에 성공했다.

1회초 1사에서 김선빈이 좌전안타를 만들었다. 터커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이정훈의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2사 1·2루가 됐다. 이어진 유민상의 우중간 안타 때 중견수 포구 실책으로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다.

KIA의 공세는 계속됐다. 김태진의 내야 안타에 이어 박찬호의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졌다. 포구를 위해 달려오던 손아섭 옆으로 공이 빠지면서 박찬호의 2타점 3루타가 기록됐다.

한승택까지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KIA는 롯데 스트레일리를 상대로 1회 5점을 뽑아냈다. 화끈한 화력 지원을 받은 맹덴은 6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펼쳤다.

삼자범퇴로 1회를 연 맹덴이 2회 선두타자 이대호에게 우중간 2루타는 내줬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웠다. 3회도 탈삼진 2개를 더해 삼자범퇴.

4회 1사에서 전주우에게 중전안타는 맞았지만 외야 플라이로 이대호와 정훈을 돌려세웠다. 한동희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5회도 세 타자만 상대했다.

6회 첫 위기를 맞았다. 선두타자 마차도를 불넷으로 내보낸 뒤 손아섭의 내야안타로 1사 1·3루에 몰렸다.

맹덴은 전주우의 투수 앞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마차도를 잡아내며 급한 불을 끈 뒤 이대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물리쳐 무실점을 이어갔다.

7회초 잠잠하던 KIA 타선이 다시 움직였다. 2사 1루에서 이정훈과 유민상, 그리고 김태진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3점을 더했다.

하지만 7회말 8점 차 리드 상황에서 다시 등장한 맹덴의 위력이 떨어졌다.

정훈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한 맹덴이 한동희에게 좌중간 투런포를 맞았다. 그리고 2사에서 안치홍에게 다시 내야안타를 내줬다. 유격수 박찬호가 안타성 타구를 잡아 1루에 송구했지만, 간발의 차로 세이브가 됐다.

결국 맹덴은 7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운드에 물러났다. 박준표가 실점 없이 7회를 끝내면서 맹덴의 성적은 6.2이닝 6피안타(1피홈런) 2볼넷 7탈삼진 3실점이 됐다.

승리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다.

8회 다시 등판한 박준표가 1사에서 연속 안타를 맞았다. 박찬호가 환상적인 수비로 한동희의 안타를 직선타로 바꿔줬지만, 박준표가 장두성에게 중전안타를 내주고 2사 만루에서 강판됐다.

이어 나온 장현식이 김준태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점수는 8-5까지 좁혀졌다. 장현식이 마차도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은 뒤 9회에도 등판했지만, 경기를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안치홍과 전주우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1사 1·2루,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했다.

큰 것 하나면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대호가 타석에 섰다. 정해영은 5구 승부 끝에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며 아웃카운트 2개를 동시에 올렸다. 8-5 승리가 완성되면서 맹덴이 2승, 정해영이 4세이브에 성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8일 홈경기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서울·충남아산 2명 확진 판정 광주, 11일 수원FC 원정경기

코로나19 여파로 광주FC의 8일 홈경기가 연기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4일 "2일 K리그1 서울 소속 선수 1명, 4일 K리그2 충남아산 소속 선수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K리그1 및 K리그2 일부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리그1·2 경기 일정이 변동됐다.

오는 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예정됐던 서울과 광주FC의 K리그1 경기와 연기됐다. 광주는 주말 홈경기를 쓴 뒤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 나선다.

또 서울을 상대로 한 15라운드 대구FC, 16라운드 전북현대, 17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연기됐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과 경기를 치렀던 성남FC의 14라운드부터 17라운드 경기도 연기된다. 성남은 울산, 전북, 포항, 강원과의 대결이 예정됐었다.

K리그2 충남아산의 10라운드부터 12라운드 경기도 연기됐다. 상대 팀은 안산그리너스, 서울이랜드, 부산아이파크다.

연맹은 연기된 경기의 일정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맹은 "이번 결정은 관할 지역 보건소가 파악한 선수단 내 예상 자기격리 대상자 수와 부상자 등을 제외한 경기 출전 가능 선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맨시티, 사상 첫 챔스 결승 진출 ... '트레블' 노린다

PSG에 2-0 완승 ... 합계 4-1 만수르 인수 13년만에 정상 눈 앞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구단 사상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맨시티는 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의 2020-2021시즌 UCL 준결승 2차전에서 리야드 마흐레즈의 멀티골을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도 2-1로 이긴 맨시티는 합계 4-1로 앞서 유럽 정상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2008년 중동 거부 셰이크 만수르에게 인수되며 '빅클럽'으로 떠오른 맨시티가 UCL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시티는 2016년 1월 페르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UCL 토너먼트에서 줄곧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 3시즌 연속으로 8강에서 탈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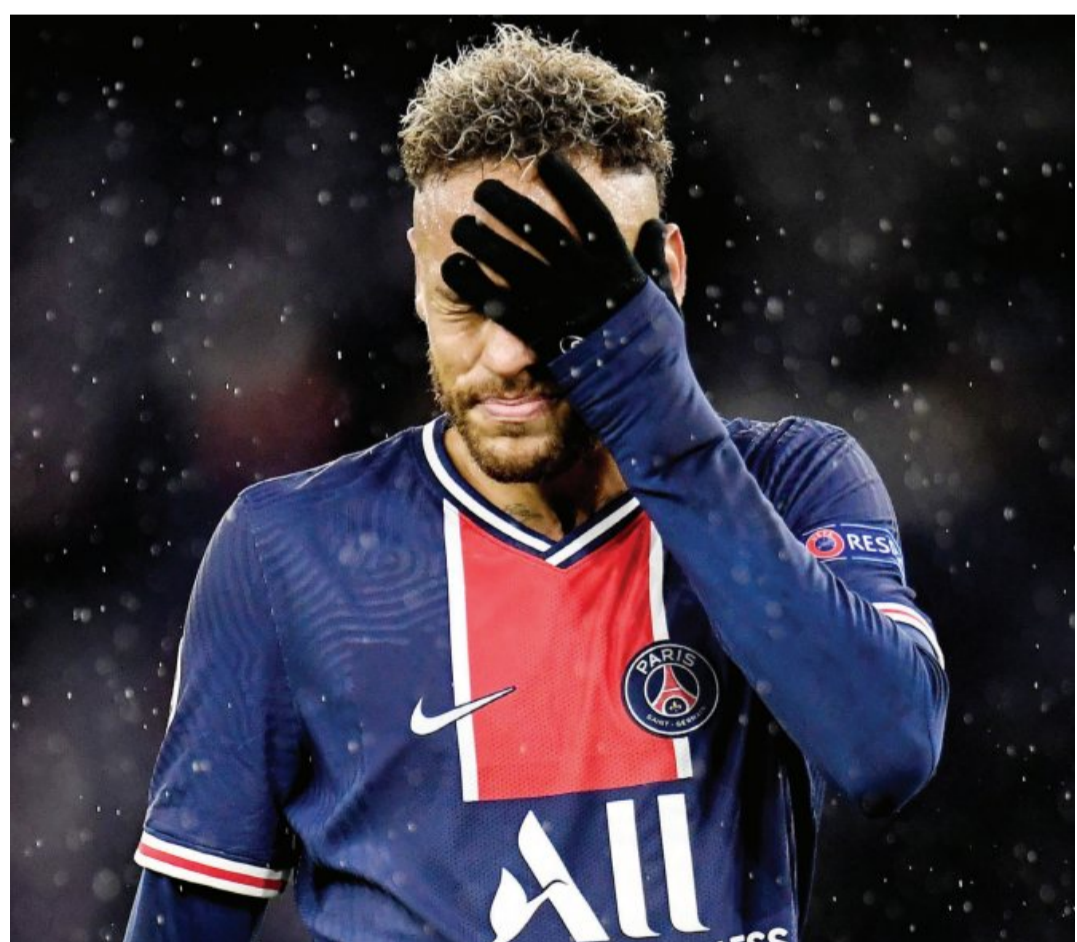
맨시티는 이번 준결승 2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UCL 7연승을 달성했다. 이는 잉글랜드 팀의 UCL 최다 연승 기록이다.

이미 리그컵(카라바오컵)에서 우승했으며 선두를 달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 가능성이 매우 큰 맨시티는 이번 UCL 결승 진출로 트레블(3관왕) 달성을 사정권에 뒀다.

맨시티는 첼시(잉글랜드)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준결승전 승리 팀과 오는 30일 오전 4시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승권 '빅이'를 두고 단판 승부를 펼친다.

지난 시즌 대회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져 준우승에 머물렀던 '프랑스 최강' PSG는 첫 우승 도전을 다음 기회로 또 미뤘다.

시즌 도중 PSG 지휘봉을 잡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무관으로 시즌을 마칠 위기를 맞았다.



네이마르 "차라리, 눈을 감고 싶어"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가 5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2차전에서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눈을 감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연합뉴스

맨시티의 첫 골은 전반 11분 만에 터졌다.

골키퍼 에데르송이 한 번에 상대 진영으로 넘긴 패스를 올렉산드르 진첸코가 땅볼 크로스로 연결하자 케빈 디브라위너가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했다.

이게 PSG 수비를 맞고 옆으로 흐르자 오른쪽에서 쇄도하던 마흐레즈가 사각에서 슈팅해 골대를 갈랐다.

마흐레즈는 후반 18분 필 포든이 왼쪽에서 넘겨

준 땅볼 크로스를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췌기 골까지 넣었다.

마흐레즈는 준결승 1, 2차전에서 총 3골을 넣어 결승 진출의 일등 공신이 됐다.

PSG 공격의 축인 앙헬 디마리아가 후반 24분 고의로 맨시티 페르난지뉴의 발등을 찌는 비인사적 행동을 해 곧바로 퇴장당하면서 승부의 추는 맨시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연합뉴스



쿠스염 휘날리며 어린이날인 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1회말 KIA 선발투수 맹덴이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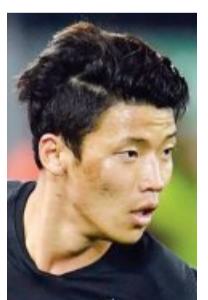
황희찬 "새 감독과 잘 아는 건 나쁘지 않아"

마쉬 감독과 라이프치히서 재회 여름 이적 등 거취 새 변수로

독일 프로축구 RB 라이프치히 이적 첫째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낸 황희찬(25·사진)이 다음 시즌 '잘 아는' 새 감독의 지도로 제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을까.

독일 키커는 3일(현지시간) '제시 마쉬 감독 부임으로 라이프치히와의 이별 대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황희찬'이라는 기사에서 "황희찬과 관련된 라이프치히의 계획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여름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맹활약하다 지난해 7월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고 이번 시즌 '빅 리그'에 데뷔했다. 그러나 시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한 달가량 자리를 비우는 등 변수가 발생하며 주축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도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겨울 이적시장 때 임대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팀을 이끄는 올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이번 시즌 이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돼 후임으로 잘츠부르크의 마쉬 감독이 낙

점대 황희찬의 거취에 변수로 떠올랐다.

마쉬 감독은 미국프로축구(MLS) 뉴욕 레드볼스 감독, 라이프치히 수석코치를 거쳐 2019년부터 잘츠부르크를 이끌었다. 라이프치히 이적 전인 2019-2020시즌 황희찬이 오스트리아에서 맹활약할 당시 잘츠부르크에서 함께 한 인연이 있다.

황희찬은 "그는 영리하고 많은 에너지를 지녔다. 지난 시즌 호흡을 잘 맞췄다"면서 "감독과 수뇌부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